

예측불허 공포 VS 미생 공포버전...뻔한 공포는 없다!



신진오 작가의 소설 '무녀굴'을 원작으로 한 영화 '퇴마:무녀굴'은 다소 '뻔한' 공포영화와는 다르게 끝까지 예측불허의 긴장감을 선사한다. 사진제공 | 케이프로덕션

위클리 매지

ASACC한 키워드로 본 퇴마:무녀굴 VS 오피스

공포영화는 더 이상 여름용 장르가 아니다. 폭염이 지난 늦여름과 초가을, 두 편의 웰메이드 공포영화가 관객을 찾는다. '퇴마:무녀굴'과 '오피스'다. 그동안 '여학교', '교복'으로 상징되던, 익숙한 공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두 영화의 등장은 기특하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서사가 탄탄하다.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의미. 몰랑공세 퍼붓는 화려한 블록버스터에 지친 관객에게 더 없이 반가운 두 영화를 '아삭'(ASACC)한 키워드로 살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인기 드라마 '미생'의 공포영화 버전이라 평가 받는 '오피스'는 현실감을 더하는 대사로 직장인들의 공감을 높인다. 사진제공 | 영화사롯데

●퇴마:무녀굴 (8월20일 개봉·감독 김휘·주연 유선 김성균)

귀신 들린 여인들이 줄이어 나온다. 긴장 놓을 틈이 없다. 주인공 유선부터 조연 임화영, 오연까지 연기력을 갖춘 여배우들의 섬뜩한 호러 릴레이.

동서양 시각에서 공포의 양면을 버무렸다. 제주 김녕사굴 설화에 깃든 무속신앙이 중심. 이를 해석하는 시선은 정신분석학과 기독교이다. '영'(靈)의 세계를 대하는 다양한 눈을 의식한, 친절한 배려.

신진오의 소설 '무녀굴'이 원작. 영화는 소설을 토대로 이야기를 다채롭게 확장했다. 제주 4·3사건은 영화의 주요 전환점. 실화 소재 이야기란 점에서 앞선 흥행작 '컨저링'이 얼핏 떠오르기도.

의문스러운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초반부터 '귀신'(혹은 범인)이 누구인지 눈치 채고, 결말 예측도 쉬운 어느 공포영화와 가는 길이 다르다. 끝까지 예측불허.

시청각에 의존하지 않은, 탁월한 '공감각'적 표현. 데뷔작 '이웃사람'으로 공포에 재능을 드러낸 김휘 감독의 공이다. '해운대'부터 '심야의 FM', '맨싱클'의 시나리오 작가답게, 방대한 이야기를 짜임새 있는 서사로 연결한 실력도 눈에 띈다.

◀ Acting(연기) ▶

◀ Story(이야기) ▶

◀ Association(연상) ▶

◀ Creativity(창의력) ▶

◀ Completeness(완성도) ▶

●오피스 (9월3일 개봉·감독 홍원찬·주연 고아성 박성웅 배성우)

누구 하나 단층적인 인물이 없다.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본성을 드러내는 연기를 펼친 출연배우 모두 '주연상' 감.

"열심히 일하지만 눈치 없이 삽질만 하는" 김과장(배성우)이 돌연 일가죽을 살해하고 사라진 뒤, 이어지는 연쇄살인 사건. 범인은 사람일까, 귀신일까.

직장인이려면, 특히 사무직이라면 보는 내내 '내 사무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직장인 공감지수 100%. 사표 던지는 홍대리(류현경)의 한 마디가 특히 귀에 박힌다. "살려고 다니는지, 죽으려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미생의 공포버전'이라 불려도 되겠다. 사소한 대사 한 마디, 행동 하나까지 지극히 현실적이다. 그래서 더 무섭다. 최윤진 작가가 10년 넘는 직장생활 경험을 토대로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까지 맡았다.

정글 같은 회사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누구의 도움도 아닌 오직 '내 힘'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인턴사원(고아성)을 통해 보여준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어도 공권력은 유명무실하다. 공포심은 물론 메시지가 놓치지 않은 영리한 선택.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1년 8월21일)

구원과 신도 전양자 방송활동 중단



앞으로 최소 1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세월호 인양 작업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참가 490일 만이다. 꽃피는 4월, 생의 꼭 한 번뿐일 수학여행의 추억을 담으려 제주로 향하던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생들을 포함해 세월호에 탔던 476명 가운데 무려 295명이 참담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여전

히 9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가족의 피흘음 속에 앞으로 1년간 이어질 인양 작업은 고단할 터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다양한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전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주인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죄과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이른바 '구원과' 역시 일길에 올랐다.

구원은 이미 오래 전 참혹한 사건과 관련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그리고 그 신도였던 연기자 전양자(사진)가 1991년 오늘, KBS 1TV 드라마 '백랑시대'에서 하차했다. 전양자는 이와 함께 모든 방송활동을 포기했다. 한 달여 전인 7월 10일 그 4년 전 벌어진 '오대양 사건'과 관련한

인사들이 경찰에 자수하면서다. 경찰이 오대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구원파에 대한 온갖 의혹 속에 신도였던 전양자는 결국 모습을 감췄다.

1987년 8월29일 경기도 용인의 공예품 제조업체인 오대양의 공장에서 박순자 대표를 비롯한 32명의 직원들이 집단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1984년 오대양을 설립한 뒤 종말론을 내세우는 등 사이버 교주로 행세한 박 대표가 신도들로부터 170억원을 벌린 뒤 이를 감지 못하자 신도들과 집단자살한 사건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하지만 4년 뒤 사건과 관련한 핵심인사들이 자수하면서 구원과 연루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

다. 당시 세모 대표였던 유병언 전 회장 역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그러나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의 연관성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 같은 여파와 의혹의 눈길 속에서 전양자는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결국 연기자로서 활동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 27년의 세월이 흐른 뒤 세월호가 바다 깊숙이 침몰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고서 전양자는 재판정에 섰다. 세모그룹과 관련이 깊은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였거나 이사진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양자는 또 다시 연기활동을 중단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빅마우스

●"이규환을 고등학교 때 봐서 얘기 같았는데 남자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연기자 김현주)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 사옥에서 진행된 주말드라마 '애인있어요' 제작발표회에서, 18년 전 단역 배우였던 이규환과 재회한 소감을 밝히며,

●"예전에 사귀던 연예인이 다른 남자 연예인과 스캔들이 났다."(가수 김창환) 20일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에서, 과거의 연애사를 공개하며,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뉴맨툰 3부 : 점점 젊어지는 남자

수/술/없/이 강한 남자! '뉴 맨!!'

www.newm.kr
NAVER 뉴맨 Q
네이버에 뉴맨을 검색하세요.

모바일에서는 newm.kr만 입력하세요

뉴맨툰은 뉴맨을 구매해주신 뉴맨 고객님의 체험후기를 약간 각색한 후 만든 작품입니다. 뉴맨 홈페이지(www.newm.kr)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T. 1588-3346, 010-8020-3346